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왜 장마철 지나서 비가 많이 올까

구세주는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신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시려고 장마를 막고 계신다

장마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말한다. 승리제단에서는 장마기간을 이 기간으로 정의했다. 예로부터 장마가 지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전역을 오르내리면서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리하여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장마는 우리 민족을 500년 이상 괴롭혀 왔다

장마란 '긴', '오랜' 이란 뜻의 한자 '장(長)' 과 '비'를 의미하는 우리말 '마'의 합성어인 '마(長 + 雨)'가 그 어원이다. 장마란 슬어는 조선 선조 9년(1576년)에 간행된 한자교습서 '신증유합(新增類合)'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장마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50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장마기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는 속담을 보아 알 수 있다.

조희성 선생은 성경과 불경 및 격양유록 등의 예언서에서 구세주(정도령, 미륵불)로 예언되어 있는 분이다. 조희성 선생은 1981년 8월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였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자 당신이 구세주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5대공약'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루셨다. '5대공약'이란 공산주의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 한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는 것, 한국에 장마를 못 지게 하는 것, 한국에 풍년 들게 하는 것, 제2의 한국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구세주는 장마 때 비를 못 오게 틀어막고 있다

'5대공약' 중 한국에 장마를 못 지게 한다는 공약이 완벽하게 지켜졌음은 기상청이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선일보 2008년 8월 23일자 보도 내용 일부이다.

〈기상청이 내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22일 "앞으로 기상청 예보에서 장마와 장맛비, 장마철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돼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장마전선이 물러난 이후에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장마 예보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국민들에게 여름철(6-8월)에 내리는 비가 굳이 장맛비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알려도 별 의미가 없다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요즘 보통 사람들도 장마 때에는 비가 안 오고 장마가 끝나면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올해도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으니 중부지방에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런데 그렇게 장마철에 주야장창 내리던 비가 왜 요즘은 안 오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장마철에 비가 안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승리제단에서는 바로 구세주께서 우리나라에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 조화를 부리고 계신 것을 누누이 밝혀 왔지만 아직도 인생들은 믿지 않고 있다. 장마철에 비가 안 와야 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농사 상식이다. 농부들이 열심히 모를 낸 논에 장맛비가 내리면 모가 뿌리를 내리기 전이로 모가 다 떠내려가 버리게 되어 흉년이 들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다.

신도들의 부탁대로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였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장마철 설교시에 당신이 장마를 못 지게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설교하였다. 정음의 어떤 신도가 비를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를 못 오게 하늘을 틀어막았고, 안양 교도소 교도관이 가뭄으로 부모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으니 비를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자마자 비를 억수같이 내리주셨다. 이처럼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다(승리제단 홈페이지 간증담 참조).

장마를 막아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시는 구세주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격양유록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류의 부모국이요 만민을 다스리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메르스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힘을 내시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구세주가 오셨다.* 김충천 기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제단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도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시는 지금 어떻게 질서를 잡아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박철수, 신순이)
- 지역 2등: 3지역(이승애)
- 지역 3등: 1지역(김종만, 박경옥)
- 구역 1등: 고선희 42구역장
- 구역 2등: 신순이 45구역장
- 구역 3등: 6구역장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 개인 2등: 김민숙 집사
- 개인 3등: 고선희 권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3)
“이긴자가 여러분 속의 마귀를 죽이고 들어가야 구원”

이긴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여러분 속의 마귀를 죽이고 들어가야 구원이다.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도 마귀인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6,000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마귀를 죽이고 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결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말씀을 하였다. 이 말씀을 감하든지 가하든지 하면 지옥 아랫쪽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도의 길

양다리

마음의 경계에 부딪혀 하나님보다 내 편 즉 마귀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면 그는 말로만 구도자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이다

영생의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 라고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어떤 일을 당하면 마음을 항상 하나님 편에 속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는 자기의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다. 그럼에도 실제 그런 마음의 경계에 부딪혀 하나님보다 내 편 즉 마귀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면 그는 말로만 구도자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이다. 아마 그는 이쪽 저쪽을 살피서 유리한 경우에 따라 행동하는 전형적인 양다리일 가능성이 높다. 영생의 길은 양다리를 잘대 갈 수 없다. 돈을 추구하든지 영생을 추구하든지 일도 양단(一刀兩斷)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돈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처님)도 잘대 안 된다. 영생의 길을 가는 진정한 구도자

라면 반드시 세상 줄을 먼저 끊어야 한다. 세상 줄을 끊는다는 것은 속세(俗世)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중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다. 산속에 있어도, 홀로 있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는 세상을 끊지 못한 것이다. 세상의 한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승리제단에 나온 지 십 년 이상 된 구도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는 일찌감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곳에 있다가는 공연히 물만 흐른다. 물귀신과 거의 비슷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들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자신이 세상과 하늘나라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빨리 한쪽을 버려라. 양다리로 계속 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지 모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5지역 압도적 성적으로 1등

본부제단은 7일 전체 구역장회의에서 6월 성적에 따른 시상식을 가졌다. 5지역(지역장 박철수 승사, 지회장 신순이 권사)은 2등보다 약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1등을 차지하였고, 2등은 3지역, 3등은 1지역이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이번 성적은 5지역이 월등한 성적으로 1등을 차지하였다. 달리에 비유하면 2등과 한 바퀴 이상의 차이로 1등한 것이다. 3지역이 2등을 차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지역이 3등을 차지 한 것은 새식구 열매 접수가 작

용하였다.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고 힘이 되는 것이다.

각 지역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절기성금 목표액을 100% 달성하기 어려운데 기여이 목표액을 달성한 것을 보면 이 역사는 결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역사가 분명하다. 전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그래서 삼금을 내걸고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어떻게 든 전도활성화를 도모하지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단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제 결코

시민 초청 강연회

괴질을 이기고 살아 남는 법

메르스보다 지사율이 더 높은 전염병이 온다

노스트라다무스, 남사고 등 예언가 21세기 무서운 전염병 예언

장소: 세계연합 승리제단 2층 강의실

강사: 김종만 / 승리신문사장

일시: 2015년 8월7일 (금)오후 5시-7시

전화: 032-343-9981(대표)

주최: 도서출판 해인